

세 개의 문(門)

The Three Gates

지난 2월 23일 본 협회 총회를 필두로 3월 한 달 간 15개 시·도건축사회의 총회는 모두 무사히 마쳤다.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회장 교체가 없는 총회였기에 회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한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마지막 임기를 잘 마무리하려는 총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조사태로 인해 지난 여름부터 정상 업무를 행하지 못한 서울의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1월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금번 정기총회까지 회장의 직무수행을 지속케 하였으나 결국 사퇴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회장과 간사 등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결과는 신임 회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 선임의 무산과 그에 따른 새 회장 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서울 총회 이후 10일 만인 3월 31일 처음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현 상황이 유희 상태인 만큼 정관에 의하여 1개월 이내인 3월 23일까지 새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속회해야한다'는 감사의견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소를 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5월 중순에 총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렇게 새 집행부를 구성할 차기 서울 총회의 속회 날짜가 두 달 썩 늦어질 경우 여러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 즉 정기총회의 1년 임기와 달리 10개월도 안 될 수 있는 잔여 임기로 인하여 출마자가 있을까하는 의구심과 함께 단독출마의 경우 성원이 안 되면 또 다시 유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겪게 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차기 정기총회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건축사회는 단순히 생각하면 16개 시도회의 한 구성원으로 치부될 수 있으나 수도 서울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의미 외에도 전국 회원의 40%를 상회하는 회원 수와 본 협회의 위원회 구성인자의 대부분이 서울건축사회원이라는 점에서 협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서울건축사회의 정상화는 단지 한 지역회의 문제를 뛰어넘어 본 협회와 직결되는 일이다.

이날 서울 총회는 정시에 성원이 되지 않아 사무국과 회의장 인근 구의 회장들을 포함한 임원들이 회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끝에 개회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나 지연된 상태에서 겨우 정족수를 10여명 넘겨 개회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회의는 감사보고와 이에 반발하는 간사들의 설전으로 비람직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예산안이 통과되고 회장의 중도 사퇴서도 수리되었으며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의장도 선임되었다. 신임 회장의 선출을 즉시 행하자는 의견에 거의 모든 회원이 박수로 동의하여 그대로 진행해도 되었으나 임시의장의 다른 의견 수렴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던 중 윤모 회원의 회원 수 확인요청 발언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중도에 가버린 회원 등으로 의사 정족수 미달이 당연시됨으로 결국 회장선출은 무산되었다.

옛날 어떤 현인이 있어 많은 제자를 거느렸는데, 그 중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머리는 명철하여 학문의 성취도가 높았으므로 먼저 들어온 제자들 보다 앞서 갔지만, 그에 비례하여 자신의 말이 옳고 다른 이의 말은 틀린다는 주장이 점점 강도를 더해갔다. 또한 때때로 없는 말을 지어내어 남을 험담하고 다녔다. 현인은 그런 제자가 너무 안타까워 어느 날 조용히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은 생명의 수문(水門)이요, 파멸의 무기라네. 남을 판단하는 말은 삼 대문을 통과한 후에 해야 하는 법일세.”

“그게 도대체 어떤 문입니까?”

“첫째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네. 둘째로, ‘자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을 통과해야 하네”

현인은 제자의 눈을 그윽이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셋째는 ‘이웃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는 문을 통과해야 할 걸세”

우리는 어린시절부터 정의를 살라는 도덕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나 학생신문을 벗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실상이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그르다고 말해야 하는 비겁함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나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의 반작용으로 유독 그럴 필요가 없는 곳에서 정의로움 아닌 정의로움을 표출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야말로 요즈음 개봉영화로 한참 뜨고 있는 제인 오스틴의 소설 제목과 같은 ‘오만과 편견’이며, 위에 언급한 세 개의 문중에서 셋째문을 간과한 것이다.

금번 서울회에서 정족수 파악을 요구한 회원도 이 총회가 얼마나 어렵게 성사한 것이었는가는 앞서 언급한 대로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이제, 그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따져보자. 우선 금전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350명 회원의 반나절 인건비와 거마비로 간단히 15만원만 적용해도 5,000여만원이다. 기타 회의장 임대료, 인쇄물 등을 고려하면 6,000여만원이 소진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장래 비상대책위원회 수고로움과 비상사태 하에서 보이지 않는 손해는 물질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앞서 기술한대로 비상체제가 내년까지 계속 될 경우는 상상하기 어려운 손실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일은 규정에 맞고 정의를 처리되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예외 없는 원칙이란 없다. 힘이 따르지 않는 정의는 실현될 수 없고 정의가 따르지 않는 힘은 폭력인 것과 같이 우리는 원칙을 지키되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하여도 그에 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득보다 해가 된다면 이는 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옳은 것의 행함이 소탐대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첫째단의 ‘원칙대로’가 첫째 문이라면, 나머지 문장은 셋째 문이다. 그렇다면 윤모 회원의 발언은 셋째 문을 통과할 수 없었던 것이 된다. 이러한 예는 그간 본 협회의 총회를 비롯한 어느 회의나 집단에서도 간간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5월이 되면, 우리는 잠자고 있던 건설회사의 설계겸업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 또한 기술사의 감리문제, 건축사법 개정 등 산적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수년간 해마다 현직 시도회장의 이사겸직에 대한 정관개정건이 충분한 합의도출과정의 부재로 부결됨으로서 마치 서울과 지방간의 세 다툼 등으로 비쳐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정상적인 서울회장의 출현은 그만큼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취하발언 한마디면 될 것을 고

집한 일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며, 반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몽쳐야 한다. 서울이 몽치고 16개시도 회원이 모두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이기에 그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난관을 헤쳐나 갈 수 있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이제 울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마음의 쇠붙이를

눈 녹이듯 호물호물

녹여버리겠지.

신동엽 시인은 '봄2' 에서 위와 같이 노래하였다.

이 글은 누구 한사람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다. 역사는 현재와 내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던 녹일 수 있는 봄의 절정에 서 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쇠붙이를 녹여버리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며 다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자.

언제 어느 곳에서도 세 개의 문을 생각하면서. ㄷ